

2018년 하반기 지역산업 전망

1. 2018년 하반기 전망

□ 세계경제 전망

○ 세계경제는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 선진국은 유로지역과 일본이 일시적으로 부진하였으나, 미국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신흥국 경제도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
- 향후 주요국의 고용여건 개선 및 소비·투자 증대 등이 글로벌 성장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
- 다만 보호무역주의 확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상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

구 분	전망시점	2017	2018	2019
IMF	18.4월	3.8	3.9	3.9
(선진국)	18.4월	2.3	2.5	2.2
(신흥국)	18.4월	4.8	4.9	5.1
OECD	18.5월	3.7	3.8	3.9
World Bank	18.6월	3.7	3.8	3.8
Global Insight	18.6월	3.8	3.8	3.8
6개 IB 평균	18.6월	3.8	4.0	3.9

자료: 한국은행(2018). 경제전망보고서

□ 2018년 하반기 주요 여건 변화

하반기 글로벌 경기 회복세 지속으로 수출 여건 개선, 반면 중국발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의한 부정적 영향 지속

- (유가상승) 유가상승 시 자동차, 일반기계, 정유, 석유화학산업에서 경기 회복 및 소득증대에 편승한 수요 확대로 수출 증대 기대
- (보호무역주의 강화) 보호무역 기조는 2018년 하반기에도 지속되며 자동차,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가정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 (글로벌 경제성장 및 수요변화) 2018년 하반기에는 자동차,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선진권과 개도권의 안정적인 성장세 지속에 힘입어 수요 증가에 의한 수출에 긍정적 효과 전망
- (글로벌 공급 과잉) 자동차, 조선, 철강, 섬유, 가전,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등은 글로벌 공급 과잉의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주요 산업별 동향 및 전망

○ 모바일 동향

'18년 상반기 (세계시장 감소세 둔화, 국내 수요는 증가)	'18년 하반기 (세계 수요 증가세 전환, 국내 생산수출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 1분기 세계 휴대폰 판매량은 최근 3개년 연속 감소세*이나 감소폭 둔화** * '16년 $\Delta 1.2\%$, '17년 $\Delta 2.8\%$ ** 전년 동분기 대비 $\Delta 0.4\%$ 감소 - 삼성전자와 LG전자 점유율 소폭 하락. 반면 중국업체(화웨이·샤오미)는 큰 성장/애플도 점유율 소폭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 세계 휴대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18.7억대 예상 - 선진국의 스마트폰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신흥국 및 중남미 지역의 성장으로 증가세 전환 - 시장규모 확대 전망(스마트폰 비중 확대·고사양화로 평균판매가격 지속상승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휴대폰은 수출 감소에도 부분품 위주 생산 증가 - (수출) 글로벌 경쟁심화·휴대폰 해외 생산확대로 4.0% 감소 - (생산) 전년 감소에 따른 기저 효과로 부분품 중심 2.6% 증가 - (내수) 지속적인 교체수요·휴대폰 판매단가 상승 등으로 6.2%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생산·수요는 전반적으로 부진 - (수출·생산) 휴대폰 및 부분품의 해외 생산 확대 추세 지속으로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 * 스마트폰 해외생산 비중 : '11년 56% → '13년 80% → '17년 91% - (내수) 휴대폰 교체주기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 전환되어 7.8% 감소 예상

구 분	주요 내용
해외 산업동향	<p>[중국업체, 중국을 넘어 인도 내 점유율 잠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업체는 자국내 수요(세계 1위, 24%)를 흡수하며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 ○ 안정적인 자국 수요를 바탕으로 외형 및 기술력을 확보한 중국 업체가 인도(세계수요 2위, 12%) 시장을 빠르게 잠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시장 내 점유율은 한국(1위, 삼성전자), 인도(4개), 중국(5개) 3개 국가의 업체들로 구성 - 중국은 '14년 1.2%에서 '17년 26.1%로 급등하며, 인도 내 시장 지배력 강화
주요 이슈	<p>[중국업체 신기술 적용 등 기술혁신 선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업체는 과거 가격경쟁력 및 자국내 수요를 기반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을 크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에는 기술력 측면에서도 미국·국내 업체에 뒤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 신규 출시 제품에 세계 최초 신기술이 다수 적용되는 등 기술혁신을 주도

○ 디스플레이 동향

'18년 상반기 (세계 시장규모 축소, 국내 산업 수급 악화)	'18년 하반기 (세계 시장규모 소폭증가, 국내생산·수출·수입 감소폭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시장은 LCD 공급과잉에 따른 패널가격 하락에 기인, 전년동기 대비 6.4% 감소한 554억 달러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시장 규모(억달러) : '17. 1분기 592 → '18. 1분기 554 - LCD : 전년동기대비 11.4% 감소한 444억 달러 - OLED : 스마트폰, TV 등 수요 확대에 104억 달러(22.9%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LED 수요확대로 전년대비 2.4% 소폭 상승한 667억 달러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시장 규모(억달러) : '17. 2분기 652 → '18. 2분기 667 - OLED시장은 하반기 10.0% 성장이 예상되며, LCD시장은 0.3% 성장 - 중소형 패널이 OLED 비중 확대에 11.6% 성장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는 생산·수출 모두 감소세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 OLED 생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LCD 패널가격 하락·생산능력 축소로 전년동기대비 5.2% 감소 - (수출) OLED의 경우 생산능력 및 수요 확대에 증가추세이나 LCD는 대폭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4.5%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생산·수출 감소는 지속되나 감소폭은 축소될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LED의 생산·수출이 증가할 전망이나 LCD 수급악화 지속, 전체 수급추이는 소폭 악화

구 분	주요 내용
<p>해외 산업동향</p>	<p>[중국의 LCD 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수급악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신규 LCD 생산라인 건설이 진행됨에 따라 '18년 기준 한국보다 많은 생산능력을 보유, 수급 및 패널가격에 대한 영향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이후 세계시장 공급은 '20년까지 연평균 8% 증가 예상되나 수요는 연평균 4%에 그칠 전망 ○ 국내 업체들은 대형 및 중소형 OLED 생산라인을 건설 중이나 LCD 생산라인 건설 계획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 '20년 중국에 이어 전세계 LCD 생산능력의 약 27% 점유 전망, OLED는 글로벌 생산능력 1위 유지 전망 ○ 국내 디스플레이산업은 LCD 수출 비중이 '17년 기준 60% 수준에 달하여 단기적 LCD 공급과잉에 의한 피해가 불가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G디스플레이는 패널가격 하락 등에 따라 '18년 1분기 적자 전환
<p>주요 이슈</p>	<p>[OLED 채택확대와 국내외 OLED 설비투자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제품 시장에서의 OLED 채택 증가세 지속되어 모바일용 디스플레이의 OLED 비중은 '14년 27%에서 '18년 47%까지 상승할 전망이며, TV용 디스플레이의 OLED 비중은 1%에서 6%까지 상승할 전망 ○ OLED 시장은 국내업체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양산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 상태로 대규모로 OLED 생산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대형 고객사 확보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이 '17년 투자 완료한 애플向 중소형 LED 생산라인은 유리기관 투입 기준 월 13.5만장 규모이며, 전체 중소형 OLED 생산능력은 월 40만장을 상회 - LG는 월 6만장 수준의 대형 LED 생산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파주에 월 4.5만장(10.5세대), 중국 광저우에 월 6만장(8.5세대) 수준의 생산라인을 신설 중 ○ 중국 업체들도 중소형 OLED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으나 생산경험과 기술확보가 미진한 상태에서 생산라인을 신설하기 때문에 생산라인의 규모가 작음

2. 2018년 하반기 지역산업 전망

□ 2018년 상반기 구미 수출 현황

○ 2018년 상반기 수출액은 약 124억불로서 전년 누계 대비 7% 감소

- (품목별) 전체 수출의 약 54%를 차지하는 전자제품(스마트폰·모니터·카메라모듈)은 전년 누계 대비 19% 감소하였고, 광학제품(액정디바이스·광섬유케이블, 광학필름)은 14% 증가('18년 5월 기준)
- (지역별) 중국으로의 수출은 전년 누계 대비 4% 감소, 유럽은 25% 감소한 반면 미국으로의 수출은 23% 증가

(단위: 백만불)

구 분	2017년 상반기	2018년 상반기 (1~6월)	비 고 (전년 상반기 대비)
수출액	13,314	12,396	△6.9%
1월	2,196	2,365	7.7%
2월	2,106	1,773	△15.8%
3월	2,436	2,191	△10.0%
4월	2,393	2,025	△15.4%
5월	2,031	2,099	3.3%
6월	2,152	1,944	△9.7%

자료: 관세청 구미세관

□ 2018년 상반기 지역내 대기업 실적

○ 지역내 대기업 주력부문의 전반기 실적악화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은 14조 8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증가했지만 전 분기보다 5.4% 감소 * 실적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IM부문(스마트폰 사업)의 부진으로 2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40% 가까이 급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 1분기 영업이익 -983억원, 2분기 약 3천억원의 적자가 예상 * 올해 초부터 비상경영 체제로 운영

□ 2018년 하반기 전망

- 지역 주력업종인 모바일·디스플레이산업의 전망이 밝지 않아 전반적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 지속이 예상
 - (모바일) 오는 8월 9일 공개될 예정인 갤럭시노트9 등 신규모델 출시에 따른 수요증대가 예상되지만 국산완제품 축소 등으로 인해 수요 증대 전망이 어두운 상황
 - * 삼성전자 글로벌 휴대폰 생산능력 : 베트남(2.4억 대), 중국(1.8억 대), 구미(2,400만 대), 인도네시아(1,800만 대), 브라질(2,400만 대)
 - (디스플레이) 중국업체와의 경쟁심화와 더불어 하반기 LCD 시장전망이 낮은 가운데 중소형 OLED 패널생산 지연 등으로 밝지 않을 전망
 - * LG디스플레이는 현재 중국과의 LCD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구미 LCD공장(P2,P3,P4)을 폐쇄한 상황이며, E5 공장은 생산 안정화 작업 진행 중
 - * 최근 애플이 '19년 모든 아이폰 모델에 OLED패널을 탑재할 것으로 보도 하면서 LG디스플레이가 새 공급업체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으나, OLED 생산시설의 규모가 작고 수율이 낮아 본격적인 시장진입이 어려운 상황. 또한 아이폰용 패널생산을 위해 조성된 E6 공장은 파주에 위치

[하반기 국내 모바일·디스플레이 산업 전망]

구분		상반기 성장률	하반기 성장률	
			하반기	연간
모바일	생산액	2.6	△8.8	△3.3
	수출액	△4.0	△4.4	△4.2
디스플레이	생산액	△5.2	△2.4	△3.8
	수출액	△4.5	△1.0	△2.7

자료: KDB산업은행(2018). 2018년 하반기 국내 주요 산업 전망

- 지역 대기업의 생산기능 이전 등이 확정될 경우 지역경제에 큰 어려움 예상
 -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는 그 기능의 일부만 수원으로 이전하고 연말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
 - 다만 LG디스플레이-광저우 OLED 합작법인 승인(18. 7. 10)에 따라 지역 내 관련 장비 및 부품·소재협력업체들의 매출증대 가능성은 존재

[참고] 2018년 하반기(3/4분기) 기업경기전망

- 구미상공회의소가 실시한 '2018년 3/4분기 기업경기전망 조사'에 따르면, BSI 전망치는 79로 나타나 전분기 전망치(112) 대비 33포인트 하락하며 또다시 어려운 국면을 예고
 - (업종별) 기계·금속·자동차부품 업체에서 103으로 나타나 호전 전망이 우세하였지만 전기·전자 63, 섬유·화학 75, 기타 58 등 나머지 전 업종에서 기준치를 이하
 - (세부 항목별) 매출(내수) 79, 매출(수출) 94, 영업이익(내수) 75, 영업이익(수출) 90으로 나타나 매출과 영업이익 등 생산 물량과 채산성 지표가 2/4분기에 비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
 - (규모별) 대기업 79, 중소기업 80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부정적으로 전망